

- 본문 : 고린도전서 15장 1~11절
- 제목 :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기독교에 비교적 호의적인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주옥같은 말씀이나 더러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도 단순히 좋은 이야기로 듣고 그냥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사랑의 일생을 들려주면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말에는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잔혹하게 죽게 했다는 것을 ‘도살(屠殺)’이라는 단어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가 어떻게 부활한단 말인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빼면 성경을 따르겠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복음의 핵심을 뺄뺄로 핵심을 놓치는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이 나와 관련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분명히 믿습니까?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에 대해 분명한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증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전15:3~4, 2, 14, 19, 20)
2. 고린도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 되었을 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부인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고전15:12). 그들은 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3. 바울이 갖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성경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는 성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 고전 15:3~4  
\* 고전 15:4~8  
\* 고전 15:8, 10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은혜라 고백합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바울 자신을 마지막에 만나주셔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신 것이 은혜라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의 비결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 안에서 부활의 주님 때문에 변화를 시작해야 할 당신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 말씀기도제목**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신할 때 구원의 핵심진리가 “부활”임을 믿고 “이같이 전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2.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부활의 생명수가 흘러가서 부딪히는 인격과 가정과 사회마다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